

Study on the Evolution of any Act of Gender-based Violence and it's Environmental Changes -Focusing on Local Extinction and Digital-oriented Environmental Changes-

여성 대상 폭력행위의 진화와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지방소멸과 디지털 중심의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Jiyoung Yoo¹

유지영¹

¹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Namseoul University, South Korea, jiyoungyoo@nsu.ac.kr

Abstract: Violence against women is the violence of power relations based on gender inequality. Violence against women is evolving, with the types of violence diversifying and the scope of damage widening among demographic changes, especially regional deviance, and digital-centered environmental changes. Give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the evolu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violence against women, using literature analysis as a major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an environment where the digital environment becomes the center of life, violence against women is evolving into a form centered on digital sexual violence and sexual crimes. At the same time, the propor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mediated violence against women is increasing. Female young people's deviance from local areas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increasing, which leads to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in provinces. This also leads to an increase in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increasing the risk of women facing violence and crime. Local extinction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lso call for changes in the local response system to violence against women. The digital environment has a double meaning: it is a space of empowerment for women,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creates a wide range of digital violence against wome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violence against women support system and the expansion of digital access to support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Keywords: Violence Against Women, Local Extinction, Environmental Changes, Digital Space, Gender Violence

요약: 여성폭력은 젠더 간의 불평등에 기반한 권력 관계의 폭력이다. 인구감소 특히 지역 이탈이라는 인구적 변화와 디지털 중심의 환경 변화 속에서 여성폭력은 폭력의 유형이 다변화하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등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여, 여성폭력의 진화와 여성폭력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환경이 삶의 중심이 되어 가는 환경에서 여성폭력은 디지털 성폭력 및 성범죄 중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 매개

Received: May 20, 2023; 1st Review Result: June 25, 2023; 2nd Review Result: July 29, 2023
Accepted: August 25, 2023

여성폭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 청년의 지방 이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것은 적지 않은 시도의 지역소멸 위기와 수도권 여성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지면서 여성들이 폭력 및 범죄에 처할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적 대응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디지털 환경은 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 공간인 동시에 광범위한 디지털 여성폭력을 낳기도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통합형 여성폭력지원체계 구축 및 여성폭력 피해 지원의 디지털 접근성 확대 등을 제언하는 바이다.

핵심어: 여성폭력, 지방소멸, 환경변화, 디지털공간, 젠더폭력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8년 제정된 이래, 여성폭력을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한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여성폭력 및 살인은 대표적으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청와대 청원 200만명 이상)(~2020년), 2021년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2022년 부산 서면 30대 남성의 20대 여성 돌려차기 및 강간미수 폭행 사건, 2023년 서울 남성의 전 연인 여성 결별통보 보복인 지하주차장 납치 살인 사건 등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가 2022년 발표한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생애에서 폭력 피해를 한번 이상 당할 경험률은 34.9%에 이른다고 한다. 여성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은 소수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포털(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하면 여성폭력의 법적 정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이다. 여성폭력의 기저에는 젠더 불평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존재한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93년 UN 여성폭력철폐선언, 2011년 유럽평의회 조약 등 국제사회는 이미, 여성폭력은 젠더 간의 불평등에 기반한 폭력이며 권력형 폭력임을 강조했다[1]. 가정 혹은 가정 외의 환경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우월과 권력을 소유하는 반면 여성은 열등과 무권력에 처해있다. 여성폭력이 젠더간 힘의 불균형에 기초한다는 것은 그것이 개인적 불행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례로 유엔여성 기구는 국가 및 사회가 여성폭력에 대한 책임으로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여성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고, 둘째 여성폭력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한 성차별의 한 형태라는 것, 셋째 여성폭력은 다중적이고 교차적이라는 점이다. 유엔여성 기구는 여성폭력의 이러한 성격을 인식하고 국가는 여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한다[2].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폭력의 유형과 개념도 진화하고 있으며 여성폭력을 둘러싼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폭력 피해 발생 및 보호의 문제는 그 여성의 거주지, 해당 지역에 근거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는 2022년 0.8 미만의 최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향후 인구 급감이 예상되며, 가임기 여성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지방소멸로 개념화된 이 현상은

여성폭력에 대한 위험도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지방에서는 다수의 읍면동이 소멸 위기에 처한 동시에 수도권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여성폭력이 남성 배우자의 가정폭력 중심, 신체적 피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종류와 범위가 광범위한 온라인 공간 상의 디지털 성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여성폭력의 양상과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인구적 측면에서 여성폭력의 외부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제기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폭력 관련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여성폭력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만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단락에서는 분량의 제한 상, 선행 연구 중 여성폭력을 둘러싼 환경이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한 몇 개만 거론하기로 한다. 손문숙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넘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3]. 한선미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관된 기준, 피해자 관점 효율적인 지원, 교차적 피해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4]. 그러나, 여성폭력 지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폭력을 둘러싼 인구학적 변화, 사회 환경적 변화와의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가령 이들이 강조하는 피해자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나 통합지원체계는, 각 지방에서 여성들이 이탈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학적 움직임이나 특정 읍면동은 곧 소멸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점점 더 피해자 구성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비혼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른바 4B세대 및 MZ세대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 분석을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중심의 환경적 변화는 여성폭력의 어떠한 유형 변화 및 진화로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인구 급감 및 지방소멸 등이 대두되는 조건에서 이것들이 여성폭력에 시사하는 환경적 변화는 무엇인가?

3. 연구결과

3.1 여성폭력의 진화

과거에는, 특히 70-90년대만 해도 여성폭력은 결혼한 여성들이 남성 배우자에게 당하는 가정 내 폭력이 대표적이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현재는 스마트폰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진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스토킹과 감시 등을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 환경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것을 매개로 한 여성 폭력 또한 그 형태와 범위가 진화하고 있다. 여성폭력의 유형이 새로 등장할 뿐 아니라, 폭력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특정 유형에서 점점 발전되고 진화된 형태의 폭력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데이트살인 등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폭력, 가해자가 1인 이상인 집단적 폭력, 온라인 상의 모욕, 성희롱, 자료 유포 등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여성폭력과 성범죄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은 점점 더 교묘하고 가해자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 범위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처럼 여성폭력의 진화 형태는 비단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없고, 매우 복잡적이고 다중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에서는 특히 여성폭력에서 최근에 두드러지는 진화적 유형인 디지털성범죄와 정보통신기술매개 여성폭력을 다루기로 한다.

여성폭력에 내재된 권력 관계와 통제, 폭력 발생의 공간과 유형의 확대는 기술의 발전과 연관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 환경 및 기술의 접근 용이성과 발전은 여성폭력을 확장 시키고 진화 시키는 매개가 되고 있다. 진화의 속도는 빠르며, 그 범위는 광대하다.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은 가해자가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사하는 폭력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 전화, 팩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통신기술, 그리고 인터넷, 휴대전화,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 등의 네트워킹 기술을 포함한다. 과거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매개 폭력은 전화를 통한 위협과 학대인 것으로 나타난다[5].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2023년을 사는 우리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알려져 있지만[6] 이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특히 현장의 활동가들은 다양한 기술 매개 여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스로의 역량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2019년에 한국여성의전화에 접수된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의 사례를 보면, 여성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에 CCTV를 달고, 여성의 목걸이에 추적장치를 달아 감시하고,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가해자가 여성의 카드사용 알림 문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확인한 가해자가 컴퓨터를 추적해서 여성 피해자가 한밤중에 다른 컴퓨터로 피신하고, 가정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피해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가해자가 배송지를 조회·추적하고 피해자를 살해, 핸드폰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이혼한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 주변동선을 파악한 뒤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전차를 살해한 것 등이다[7]. 이러한 사례들은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측이 어려운지 보여준다. 그래서 [8]은 정보통신매개 기술폭력은 현행 법률이 정의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포섭되지 않는 형태임을 지적한다. 피해자의 인터넷 계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GPS를 통한 감시와 감청, 성적인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을 담은 CCTV 촬영 등은 현행법 상 가정폭력의 범주로도, 성폭력의 범주로도 포착되지 못한다[7]. 정보통신기술과 장비 대중화로 여성폭력 행위자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통제 역시 쉽고 정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대로 피해자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안전지대의 박탈’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 정보기술활용 수준과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률이 독보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SNS, GPS 기술, CCTV 등을 매개로 한 여성폭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또 하나, 여성폭력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이루어져 그것이 성범죄의 형태로 확대될 때, 디지털성범죄로 인정된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흔히 알려진 대로, 디지털공간에서의 불법 촬영, 비 동의 유포, 재 유포, 유통, 공유,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등이 있다.

4B세대 여성들이 남성과 연애 및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여성폭력의 감소를 의미할 수는 없다. 이제는 가정의 테두리가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혹은 비 친밀 기타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양산되는, 폭력의 진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10-20년 후 여성 폭력의 유형에서 가정폭력 비중은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디지털성폭력과 폭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CCTV, 스마트폰,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과 같은 신종유형은 증가할 것이다.

남성들은 여성혐오, 여성집단에 대한 약자 취급, 여성의 성(sexuality)을 사고 팔고 농락하기도 한다. 디지털공간이 가지는 익명성은 여성혐오와 디지털성범죄가 무분별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기에 용이한 공간이다. 디지털공간에서 게시물의 선정성은 쉽게 유포되고 쉽게 범위를 넘어선다. 그 공간에서 남성들의 여성혐오, 반사회성, 시선 끌기, 여성폭력에 대한 둔감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여성폭력을 디지털성범죄 및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폭력 근절 정책 또한 이에 대응하여 2018~2022 여성폭력근절 정책의 방향을 온라인 공간 내 여성폭력 근절로 삼았다[9].

3.2 사회 환경적 변화 1: 디지털 공간의 다중적 의미

디지털 공간은 여성폭력을 양산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성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피해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성혐오, 여성안전, 여성폭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며 문제제기 하면서 서로를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은 각각 다른 정도와 의미로 인터넷, SNS, 디지털공간을 활용하지만, 그 공간에서 여성은 소비자만이 아닌 주도자이며 여성들에게 디지털공간은 임파워먼트의 장이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가족내 혹은 가족 외 돌봄 제공자로서 중 고령 여성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관계 맺음과 임파워먼트의 장으로 작동한다. 젊은 2030 청년 여성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세대가 되었다. 그들은 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의 4B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청년 여성들이 가진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삶에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공간적으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사이버 공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영향이 지대하다. 연령을 초월한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공간은 대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특히 여성들의 높은 정보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온라인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이다.[9]에 의하면 국민의 95.2%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94.0%는 정보획득을 한다.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은 10-50대는 98.7-99.9%, 60대는 88.8%, 70대 이상은 38.6%이다. 우리나라 전국민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가정주부의 정보화 비율은 76.0%, 20-40대는 103-104%, 60대는 85.6%이다. 현재 40대-50대 정보화 비율이 약 102-104% 정도 이므로, 향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60-70대의 정보화 수준은 절대치 1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7]. 특히 중 고령 여성들의 인터넷

사용률과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게 나타난다. 55세 이상 여성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1.3%, SNS이용률은 61.1%, 60세 이상 여성노인 인터넷 이용률 65.9%이다[11].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의 SNS 이용률은 남성보다 증가 속도가 높다[12]. 젊은 여성들은 물론이고 중 고령 여성들 또한 정보 능력자로 분류되기에 충분한 통계 수치들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공간이 여성폭력에 가지는 함의는 모순적이며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디지털 공간은 여성 혐오가 자행되어 여성 피해자가 쉽게 양산되는 공간이며,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공간은 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 공간이다. 디지털공간은 탈 공간, 탈 맥락, 탈시간적 이동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그 공간에서 자유를 느끼고 타인과의 연결을 경험한다. 또한 디지털공간에서 의사소통의 양방향성과 멀티미디어 기술은 수신자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공감 가능성 또한 증대 시킨다. 돌봄 제공자로서 여성들은 디지털공간에서 소속감을 경험하고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실제로 포탈과 SNS 공간에서 연대를 경험하고 동시에 함께 특정 사안에 대해 저항하기도 한다. 특히 SNS 중 트위터는 의제화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13].

3.3 사회 환경적 변화 2: 여성의 지방이탈과 지방소멸

여성폭력의 발생, 유형, 대처는 인구 변화 특히 지역별 인구 변화와 연결 지어야 한다. 여성이 현재 20대-40대이면 그 여성들은 20년 후 40-60대 여성이 될 것이고, 이들의 혼인 유무, 출산 유무, 정주 지역 등이 여성폭력의 발생과 위험성, 그리고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적 대응과 밀접히 연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 여성들 중 비혼, 미혼, 저 출산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인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은 대략 2.1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1.0이하인 0.98을 기록했었다. 이후 2019년에도 0.92, 2020년 0.8을 기록했다. 2022년 0.74로 마침내 0.8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OECD 합계 출산율 평균값은 2018년 기준 1.6이다. 인구 감소는 청년, 특히 가임기 여성의 비혼, 비출산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여기서는 인구 감소와 동시에 여성폭력을 둘러싼 지역적 환경 변화로 지방소멸 현상을 강조하려 한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본래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방의 젊은 여성들의 수도권 이동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2015)의 핵심 내용에 착안한 것이다([14]참조). 지면의 한계상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15]와 [16] 등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개념 및 지수에 대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적한 반론도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가 2018년 발표되었고 그 이후 연속적으로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지방소멸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 관심 및 주력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우리나라도 젊은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맞물려, 동시에 젊은 여성 인구가 지방을 이탈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합계 출산율은 낮아지며 지방 인구는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 2047년에는 229개 시 군 구의 69%인 157개 시 군 구의 경우 2047년부터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로 인해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며 대부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젊은 층 인구기반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14]. 청년의 지방이탈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특정 시군 구의 경우 실제 청년 유동인구를 관찰하기 힘들며, 일자리 상실을

동반하는 초중고의 폐교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있다. 지역별 인구 감소 현상을 보다 정확한 수치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지역별 소멸위험 지수이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이론에 따르면, 20~39세 여성인구를 지역공동체의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의 토대로 본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역공동체의 현재 구성원이지만 미래에는 자연감소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간주한다. 이것에 기반해 소멸위험지수라는 것이 도출된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인구 소멸위험지수가 만약 0.5이하라면, 20~39세 여성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 이하인 상황을 의미하고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없는 한,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지역 공동체의 인구가 소멸되는 위험이 높다고 본다([10] 참조). 우리나라 감사원이 2021년 발간한 인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이 83개(고위험 소멸단계 12, 소멸위험 진입단계 71)에서 2047년에는 전국 229개(고위험 소멸단계 157, 소멸위험단계 진입 72)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2047년에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무려 157개에 달한다[17].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령인구, 초고령인구 중심사회로 가다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초 저출산 구조 속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비율은 50%를 넘고,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데도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의 원인은,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인 수도권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은 저출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구가 유출되면서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여성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이라는 인구 환경적 변화는 그 지역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양상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유동인구가 적고 고령 인구가 많아 여성폭력 위험도 및 여성 대상 범죄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도권의 여성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스토킹, 데이트폭력, 묻지마 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국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대응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면 첫째, 디지털 중심의 환경적 변화는 여성폭력 유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성폭력은 디지털성범죄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매개 여성폭력이 여성폭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은 여성폭력이 양산되는 공간이자, 동시에 여성들이 젠더폭력 및 여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임파워먼트를 얻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인구 급감, 지방소멸, 젊은 여성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으로 대표되는 인구 사회적 변화는 여성폭력의 지원체계 또한 물리적 지역적인 재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두 가지 결론과 관련지어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여성폭력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도전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여성폭력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여성폭력의 확대와 진화 그리고 비혼 혹은 미혼의 단독 세대로 그 특징이 대표되는 4B세대이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년 여성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이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또한 여성들에게 디지털공간은 여성폭력 및 여성 혐오 범죄의 매개체가 됨과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간의

임과워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에 성폭력 상담소 103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4개, 가정폭력 상담소 128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5개, 성매매 상담소 30개, 성매매 보호시설 66개를 비롯해서, 해바라기센터 39개, 여성긴급전화 1366 이 18개 가 있으며, 서울시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25개까지 추가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상담, 전화, 대면, 임시 보호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 체계들은 각 지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제공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Table 1]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Korea

센터 (개)	전국							서울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 긴급전화 1366	위기가정 통합지원 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39	103	34	128	65	30	66	18	25	1	

출처: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국가통계포털, 각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함

첫째, 우리나라 여성은 중 고령 여성들의 정보화 비율이 높고 이용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청년여성들이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에게 SNS 이용과 환경 비중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직후 피해자 지원 정보를 검색하는 속도와 그 역량은 높다. 즉 우리나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또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지원 매개체가 전화나 대면 상담보다 SNS활용과 비대면 상담 체계의 비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적인 긴급 지원 체계 중 하나인 NDVH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의 경우 점점 더 주요 상담 방법은 전화, 이메일, 문자, 채팅 상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채팅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또 NDVH의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과 채팅, 문자, SNS 활용 등 상담방법 다각화로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20년 미국 NDVH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1년간 상담 건수가 45% 증가하였으며, 총 상담 건수 중 채팅과 문자가 전체의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의 원인으로 NDVH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25세~33세이며, 이들이 전체 이용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30%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NDVH에 관한 이하 내용은 [18] 참조). 아울러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한 여성폭력의 진화와, SNS 및 스마트폰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린 여성 피해자들의 속성 그리고 디지털공간이 여성들의 임과워먼트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공간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여성폭력 지원체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지원체계, 그리고 온라인 매개 폭력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7년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한 환경 조성, 디지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소멸이라는 인구사회 환경적 변화는 우리나라 여성폭력 지원체계가 통합적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통합지원체계가 수도권에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통합지원체계는 지역적 이해 관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를 먼저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지방에 존재하는 여성폭력 지원체계, 가령 상담소, 보호소 등은 점차 통합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 인력은 통합 지원체계로 흡수되어 관련된 현장 종사자들의 고용과 경력 유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통합지원체계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닌, 기존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통합지원체계는 피해자를 위한 비대면, 대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난민, 이주 여성,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여성 등 특정 군집의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존의 서비스가 유지하던 전문성 및 특성화는 유지 및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통합지원체계는 앞에서 강조한 온라인 기반 지원 체계 강화 외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원 서비스들인 안전한 숙소, 법적 조언, 정신적·정서적 지원, 직업 훈련과 재활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지자체, 경찰, 민간 상담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에 더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 단체, 정부 기관, 비정부 기구, 학교, 의료 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통합된 기존 전문, 준 전문 인력들은 각 전문성별로 교육 및 훈련 체계를 재구축하고, 새로운 통합지원체계에 맞는 전문성을 새로 갖추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이 감지될수록 소수의 여성이라도, 여성폭력 및 여성 범죄 행위에 더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소멸 위험 지역의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지원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본 연구의 후속 연구의 주체로 남겨두는 바이다.

References

- [1] Korea Women's Human Rights Agency, A Study on Establishing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2022)
Available from: https://www.stop.or.kr/multicms/multiCmsUsrList.do?category=pd&srch_menu_nix=nFog4NJ7
- [2] UN Women, Handbook of National Abolition Plan on Violence against Women, (2012)
Available from https://www.unwomen.org/sites/default/files/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Library/Publications/2012/12/UNW_Legislation-Handbook%20pdf.pdf
- [3] Son Moon-suk,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Beautiful Light Beside You', a project to support self-reliance of wom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orld Violence Against Women Forum, Korean women's phone calls, (2019)
Available from: http://hotline.or.kr/board_uopK97/61578
- [4] Seonmi Han, Complexity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Secondary Damage: Seeking the Direction of Integrated Support and Basic Law, Women's Human Rights Forum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 To the Daily Life of Victims: Plans to Strengthen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Korea Women's Human Rights Agency, (2022)
Available from: https://seoulgenderequity.kr/cpt_activity/%ED%95%9C%EA%B5%AD%EC%97%AC%EC%84%B1%EC%9D%B8%EA%B6%8C%EC%A7%84%ED%9D%A5%EC%9B%90-2022-%EC%83%81%EB%B0%98%EA%B8%B0-%EC%97%AC%EC%84%B1%EC%9D%B8%EA%B6%8C%ED%8F%AC%EB%9F%BC-%ED%94%BC%ED%95%B4/
- [5] J. Belknap, D. Larson, M. Abrams, C. Garcia, K. Anderson-Block, Types of Intimate Partner Homicides Committed by

Women: Self-Defense, Proxy/ Retaliation, and Sexual Proprietariness, *Homicide Studies*, (2012), Vol.16, No.5, pp.359-379.

DOI: <http://dx.doi.org/10.1177/1088767912461444>

- [6] Sung Ki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Mediated Domestic Violence: Focusing on Overseas Studies, 2019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Policy Debate Bookle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Mediated Domestic Violence Beyond Physical Space, Korea Women's Human Rights Agency, (2019)
Available from: https://www.stop.or.kr/multicms/multiCmsUsrList.do?category=pd&srch_menu_nix=nFog4NJ7
- [7] Korea Women's Human Rights Agen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Mediated Domestic Violence Beyond Physical Space, (2019)
Available from: https://www.stop.or.kr/multicms/multiCmsUsrList.do?category=pd&srch_menu_nix=nFog4NJ7
- [8] Jihyeon Chu, Domestic Violence Victim Support Tasks and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echnology Development, 2019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Policy Debate Bookle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Mediated Domestic Violence Beyond Physical Space, Korea Women's Human Rights Agency, (2019)
- [9] Kim Jeong-hye, Yoon Deok-gyeong, Jung Soo-yeon, Lee In-sun, Lee Ju-young, Police's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Cases and Improvement Plans,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8)
Available from: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age=1&idx=122962>
- [10]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ternet Usage Survey, (2020)
Available from: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2886&searchOpt=ALL&searchTxt=>
- [11] Kim Myeong-yong, A study on information technology use and non-use attitudes of elderly women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2016), Vol.17, No.3, pp.352-36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3.352>
- [12] Eunjae Huh, Hotaek Lee, The Effects of Women's Motivation to Use SNS on Information Search, Word of mouth, and Purchase Intention: Moderating Effect of SNS Usage Time, *Journal of Distribution Management*, (2020), Vol.23, No.3, (2020), pp.133-146.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99236>
- [13] Eunjoo Kim, Online-Feminism as the Fourth Wave, Presentation Materials at the Korean Society of Women's Philosophy Conference, pp.21-38, (2019)
Available from: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5404>
- [14] Hiroya Matsuda, Local Disappearance: Survival Strategies for Cities and Regions Chain Collapsing Due to Population Decrease, Translated by Kim Jeong-hyeon, Wiseberry, (2015)
- [15] Doochul Kim, Is 'Regional Disappearance' a Reality or a Political Advocacy?: Implications from Japan's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Conference*, pp.123-124, (2022)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voisDetail?voisId=VOIS00692445#a>
- [16] Kim Young-ran, Local extinction crisis and the role of welfare community,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munity Welfare Conference*, pp.3-30, (2021)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8281>
- [17]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 Report: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 I (Region), (2021)
Available from: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22>
- [18] USA,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2021)
Available from: <https://www.thehotline.org>